

(KIC중국, 2021.6.23)

## □ 中, 델타 변이와 ‘교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위협과 도전은? (1)

○ 중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교전’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관심 변이(Variants of Interest)’ 는 4종이다. 이 가운데 2020년10월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B.1.617.2), 즉 델타 변이가 최근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WHO 수석과학자 슈야 스와미나탄 박사는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델타 변이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WHO가 지난 15일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보고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세계 80여개국이나 지역으로 이미 확산됐다.

최근 광저우와 선전, 둥관 지역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왔다.

광저우시 위생건강위원회가 21일 통보한 바에 따르면 5월21일~6월20일 광저우시에서 누적 153명의 감염자가 보고됐다

지난 6월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선전으로 입국한 CA868항공편 입국자들의 역학 조사를 맡았던 선전 바오안(寶安) 공항 해관 관계자 장(姜)모씨가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선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보고됐다. 이중 1명은 난산(南山)구 허우하이 (后海) 향천 과학기술 광장 A동에서 근무하는 샤오(蕭)모씨로 그의 중점 활동 반경에는 공항교통센터가 포함됐다. 다른 1명은 바오안공항 내의 한 식당 직원 주(朱)모씨다.

선전시 신문관공실은 19일 저녁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과 19일 선전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주모씨와 샤오모씨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 시퀀싱(염기서열 분석)을 마쳤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CA868 항공편 입국자 중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16명 및 14일 보고된 확진자 장모씨와 유사성이 높았으며, 모두 델타 변이었다. 선전시 관계 부처는 역학 조사 상황, 핵산 검사,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이번 선전 지역 감염은 해외유입 사례라고 판정했다.

둥관시는 지난 18일 둥관시 난청가도(南城街道) 바이웨상청(百悅尚城)에 거주하는 리모씨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리모씨는 선전이 통보한 확진자 샤오모씨의 부인으로 유전자 시퀀싱 결과에서도 리모씨가 감염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과 남편 샤오모씨가 감염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저녁 둥관은 이날 둥관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둥관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리모씨의 밀접 접촉자로 광저우 신화대학 둥관 캠퍼스에서 재학 중인 학생 자(賈)모씨이다.

앞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델타 변이와 교전을 벌인 경험이 있었다. 광시 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5월17일 베트남을 시찰한 중국인 5명이 광시성 핑샹(憑祥)시 여우이관(友誼關) 출입국관리소를 경유해 귀국한 후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었다고 발표했다. 4월25일 저장성(浙江省) 저우산(舟山)시 모 조선소 정박지에서 수리한 홍콩 국적 선박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선원 11명이 발견됐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위클리(China CDC Weekly, 영문)’ 온라인판 논문은 층층으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의 유전자 시퀀싱 분석에서 이들 3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들이 인도에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新华社, 2021.6.22.)